

“승격 청부사? 목표 이룬 자부심이 크죠”

제주Utd U-18 신임 감독 이상호

역대 최다 승격 기록 제주Utd 사령탑 남기일 2021시즌 K리그1 정상 향한 굳은 결의 밝혀

“이번 시즌 목표는 당연히 정상을 향해 전진하는 거죠”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의 사령탑인 남기일(47·사진) 감독에게는 ‘승격 청부사’라는 별명이 항상 따라다닌다.

올해 K리그 지도자 9년차인 남 감독은 그동안 세 차례나 K리그2(2부리그) 팀을 K리그1으로 승격시켜 ‘K리그 역대 최다 승격’의 자랑스러운 훈장을 가슴에 달았다. 2014년 광주 FC와 2018년 성남FC를 1부리그로 끌어올렸던 남 감독은 지난해 제주를 지휘하면서 팀을 1년 만에 K리그1으로 복귀시키면서 ‘승격 청부사’의 능력을 또 한 번 입증했다.

더불어 남 감독은 지난해 제주 U-18 감독 제패로 사령탑 경력 8년 만에 첫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리는 기쁨도 누렸다. 하지만 우승과 승격의 기

쁨 앞에는 ‘승격팀=강등 1순위’라는 험난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22일 제주도 서귀포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남 감독은 “우리의 목표는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라며 1년 만에 돌아온 K리그1 무대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남 감독은 자신의 별명에 대해 “어려운 팀들을 많이 맡았고, 그때마다 좋은 성과를 내서 기쁘다. 많은 분이 ‘승격 청부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팀이다. 감독의 역량을 발휘하기 좋았다. 그런 부분은 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를 맡았던 이유는 구단이 생각하는 미래의 방향이 나와 일치해서”라며 “저와 구단의 방향이 일치하고, 뚜렷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

고 있다. 지난 시즌 이뤄낸 승격은 그런 과정의 결과다. 올 시즌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구단들이 새 시즌을 앞두고 뜨거운 영입전을 펼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주는 조용한 편이다. 지난해 K리그2에서 함께 승격한 수원FC는 무려 19명의 선수를 영입했다. 하지만 남 감독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남 감독은 “우리는 기존 선수를 잘 지켰다. 좋은 선수를 잘 지키는 것도 ‘영입’이나 다름 없다”라며 “좋은 조직력 안에서 이제 선수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다. 외국인 선수 영입만 잘 마무리 된다면 이번 시즌 조심스럽게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 선수들도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덧붙

였다. 연합뉴스



“좋은 팀 만들어 보답하겠다”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 18세 이하(U18) 유소년팀 신임 감독으로 이상호(사진) 전 제주 U18 유소년팀 코치가 선임됐다.

제주는 기존 신현호 제주 U18 유소년팀 감독이 프로 스카우트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이상호 제주 U-18 유소년팀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신임 감독은 2004년 부천 SK에 입단해 2010년까지 제주에서 활약했다. 2008년에는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돼 북한과의 2차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2010년 제주의 리그 준우승 당시 주전 우측 사이드백으로 활약했고, 이후 2011년 전남을 거쳐 2013년까지 K리그 무대에서 활약했다.

K리그 통산 191경기에 출전해 1골 2도움을 기록했다.



이 신임 감독은 제주 U18 유소년팀 코치로 합류한 2017년 첫 해에 제주 유소년팀의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인 금석배 우승을 이끌었으며, 2018년에는

문체부장관배 전국축구대회 우승에 공을 세웠다. 이상호 신임 감독은 “제주라는 팀은 선수생활부터 첫 지도자 생활까지 할 수 있었던 고마운 팀”이라며 “U18팀을 좋은 팀으로 만드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계적인 훈련과 그간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U18 선수들이 프로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도배드민턴협회장에 이상순 전 시장

제주도배드민턴협회 회장 자리에 이상순(사진) 전 서귀포시장이 앉게 됐다.

도배드민턴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제주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상순 전 시장을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상순 신임 회장은 제주도 농업 기술원장과 서귀포시장을 역임했



며, 선거 당시에는 도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다.

한편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 말까지이다.

송은범기자

스프링어 6년간 1억5000만달러 계약

MLB 토론토 사상 최대 규모

미국프로야구(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의 역사상 최고 몸값 신기록을 세운 외야수 조지 스프링어(32)와 토론토의 계약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AP 통신은 토론토와 6년간 1억 5000만달러(약 1658억원)에 계약한 스프링어의 세부 계약 내용을 24일(한국시간) 소개했다.

스프링어는 먼저 계약금으로 1000만달러를 30일 이내에 받는다. 올해 연봉으로는 2200만달러를 가져간다.

내년 연봉은 2800만달러로 올랐다. 2023년부터 4년간은 해마다 2250만달러를 받는다.

스프링어는 해마다 자신의 등의



없이 트레이드할 수 없는 8개 구단을 지칭할 권리를 계약서에 담았다. 또 원정 경기에선 호텔 스위트 룸을 사용한다.

스프링어는 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면 보너스금 15만달러를 받는다. 또 월드시리즈 MVP 수상, 실버 슬러거·골드 글러브 수상, 올스타 선정 때엔 5만달러씩을 부수입으로 챙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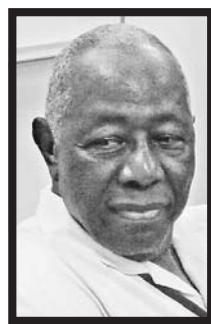
올해 자유계약선수(FA) 최대이중 한 명으로 꼽힌 스프링어는 뉴욕 메츠와 토론토를 저울질하다가 블루제이스 유혹을 받았다.

6년 1억5000만달러는 2006년 버넌 웰스의 7년 1억2600만달러를 뛰어넘는 토론토 구단 사상 최대 계약 규모다.

연합뉴스

MLB 전설 행크 에런 별세

가난·차별 극복 진짜 홈런왕 알리 “존경하는 유일한 사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왕 행크 에런(사진)이 22일(현지시간) 향년 86세로 별세했다. 별세 소식은 애틀랜타 지역 매체들이 국민의 발을 인용해 맨 처음 보도했다.

메이브 루스의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넘어선 에런은 인종차별을 견뎌낸 역대 최고 타자 가운데 한 명이다.

미국의 북성 전설 무하마드 알리가 생전에 “나 자신보다 더 존경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에런을 꼽은 것이 그의 위상을 잘 말해준다.

에런의 통산 755개 홈런 기록은 2007년 배리 본즈에 의해 깨졌으나, 약물 스캔들에 휘말린 본즈보다 에런을 여전히 ‘진짜 홈런왕’이라고 여기는 팬들이 많다.

에런은 1956년 내셔널리그(NL) 타격왕, 1957년 최우수선수(MVP) 타이틀을 각각 거머쥐었다. 1957년에는 월드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를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하는 곁경사를 누렸다.

1966년 브레이브스가 다시 애틀랜타로 홈구장을 이전한 것을 계기로 흑인 인권운동에도 눈을 뜨게 됐다.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500홈런과 3000 안타를 동시 달성하고, 8시즌 40홈런 이상을 치면서 승승장구하던 에런은 백인들의 우상 루스의 통산 홈런 기록에 근접하면서 극심한 인종차별 모욕과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루스의 통산 홈런 기록이 1개 모자란 채로 1974년 정규시즌을 시작하려던 그에게 “은퇴하거나 아니면 죽어 버려” 등의 협박 편지가 쇄도한 것이다. 연방우체국에 따르면 에런은 100만통에 가까운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에런이 세운 통산 최다 타점과 장타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통산 안타도 3위에 올라 있다. 은퇴 후 1982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에런은 2002년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골 줄 넘기자 24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오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전주 KCC와 서울SK의 경기에서 KCC 라건아가 수비에 막혀 고전하고 있다. 이날 서울SK는 0.4초를 남기고 결승점을 넣어 82-80으로 승리하며 KCC의 13연승을 저지했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It lists various television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A horoscope section titled '오늘의 운세 25일'. It includes a small photo of a man and a list of zodiac signs with corresponding predictions and advice for the day.